

근년도 산재발생경향의 특성

- 중고령층의 산재를 중심으로 -

임 현 교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1. 서론

우리 나라는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노령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는데[1], 1996년 12월에 발표된 통계청 추계에서는 2000년의 노령화지수를 32.89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 2000년 조사된 바에 따르면 35.0이나 되어 그 오차가 무려 10%에 이르는 사실에서도 그러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장년 인구의 부양부담도 급속히 커졌고, 머지 않아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생산근로현장에서의 중고령자의 비율이 증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고령자의 신체적·기능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도 산업안전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동향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의 산재통계자료와 경제통계를 근거로 산업재해 동향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고령 사회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산재발생의 변화추이

근년 산업재해율의 변화특성을 살펴보면, 산재발생의 절대 건수가 감소하여 도수율은 감소한 반면, 강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중고령자의 산재발생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총 산재발생건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고는 하지만, 45세 이상 중고령자에 의한 산재 점유율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의 경우, 전체 산업재해의 38%를 중고령자(45세 이상)가 차지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도 전체 산업재해의 25%나 된다[2].

이와 같은 사실은 각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와 산업재해의 비율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Fig.1은 경제활동인구의 점유율에 대한 산업재해 점유율을 비교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세 이하의 젊은 근로자들이 관련된 산재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해 온 반면, 40세 이상의 중고령 근로자가 관련된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산현장의 근로자비율에 비해 중고령 근로자의 산재발생빈도

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중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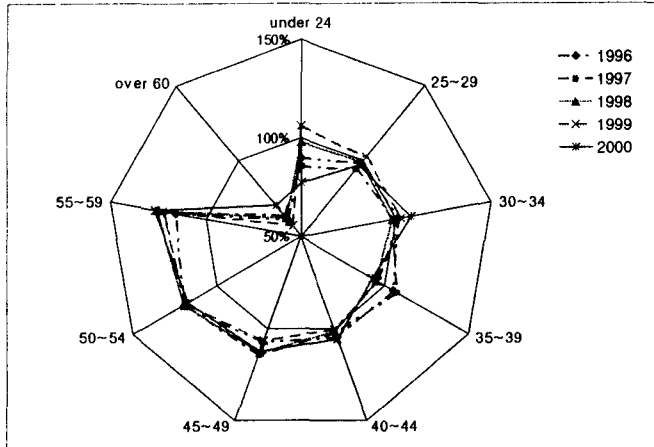


Fig.1 Portion ratio of accident to population

3. 중고령자 산재의 특성

천인율을 연령별로 정리해 보면, 18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천인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업종에 관계없이, 중고령자의 산재 발생빈도가 젊은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평균근로손실일수를 보면, Fig.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령화가 지속될수록 평균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같은 재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피해가 크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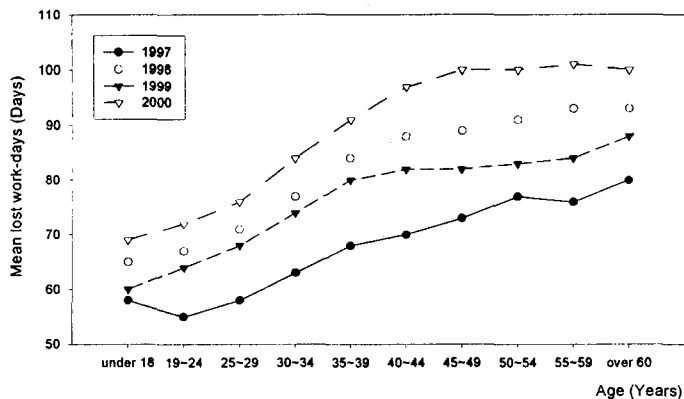


Fig.2 Variation of lost work days per an accident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모든 연령전반에 있어서 근로손실일수가 증가경향에 있다는 점이다. 1997년의 근로손실일수에 비해 2000년의 근로손실일수는 적게는 25% (60세 이상) 에서, 많게는 38% (40~44세) 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전산업에 대한 평균적인 변화이므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작업형태나 강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자들의 작업능력이나 신체적 위기회피 능력이 모든 연령층에서 평균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셈이므로, 매우 우려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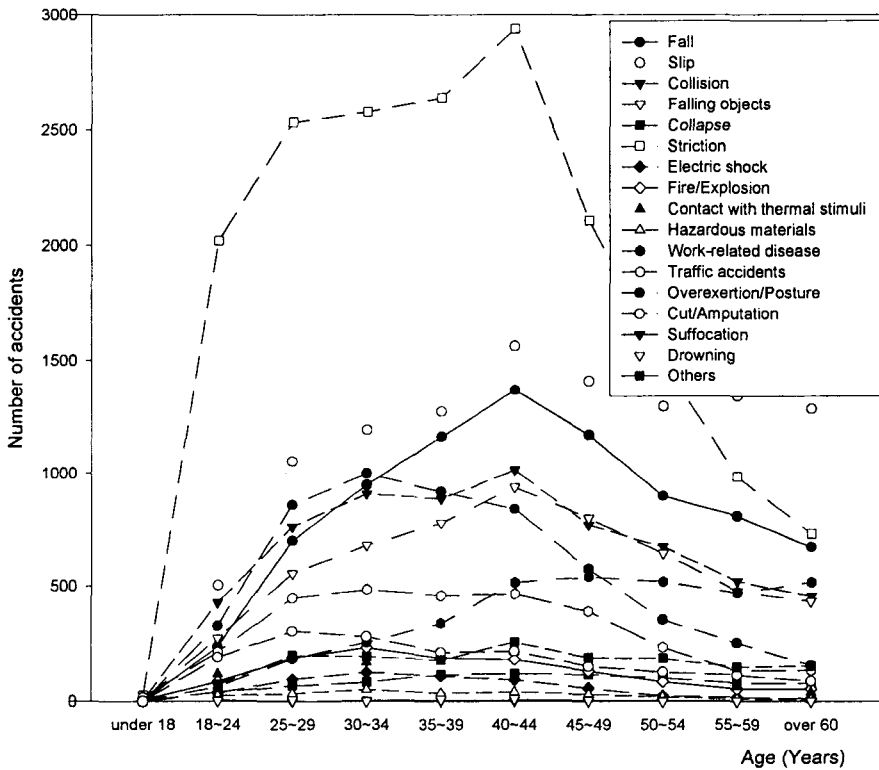


Fig.3 Number of accidents over age (2000)

한편, Fig.3과 같이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형태를 연령별로 정리하면, 40세 전후가 가장 산재가 많았다. 여기에서 18세 미만의 연령층에 발생건수가 적은 것은 취업근로자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고, 45세 이후에서는 대부분 유형의 재해발생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생산활동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생산분야에서 가장 숙련된 기술인력으로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역시 40대 전후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

40세를 정점으로 모든 유형의 산업재해는 감소하지만, 직업관련성 질환만은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고 모든 연령계층 전반에서 발생하며, 특히 5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추락

보다도 전도가 중요한 재해발생형태이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근로자의 신체기능적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4], 협착, 과잉동작 등 일반적인 재해빈발형태 대신, 전도, 추락, 업무상 질환 등이 산재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가 중고령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분야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현상에 비해 국가적으로는 아직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3]. 예를 들어, 1999년 이후 경제활동인구는 25세~29세 층이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실업율은 오히려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만 증가하였다[5].

이같은 사실은, 일하고자 하는 중고령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는 적다는 의미이며, 결과적으로, 중고령 근로자의 생계형 취업이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 기능의 변화나 직종에 관계없이 취업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한편, 최근에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모든 산업에 있어서 전년에 비해 인력 부족률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몇 년 사이에 부족률이 팔모할 만큼 증가하여, 경기회복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5].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당분간 단순노무직에 취업하는 중고령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결국 중고령 근로자만이 갖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산업재해의 발생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향후 산업재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고령자의 기능특성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산재예방활동의 방향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임기성, 고령자 취업현황과 그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88.
- [2] 노동부, 2000년 산업재해분석, 2001.
- [3] 노동부, 노동백서, 1999.
- [4] Small, A.D., "Design for Older People," in *Handbook of Human Factors* edited by Salvendy, G., John Wiley & Sons, Inc., 1987.
- [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2001.